

CryptoCraft Lab 학부연구생 후기

한성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과 14학번 우재민
vlxksla123@naver.com

2017년 1학기 복학 이후 C언어 수업을 통해 서화정 교수님을 처음 뵈게 되었고 같이 학교생활을 하던 임지환 학생을 통해 자연스럽게 CryptoCraft Lab의 학부연구생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복학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학교 수업 외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고 교수님께서서는 좋은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처음 가봤던 2017년 고려대에서 개최된 정보보호학회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저에게 교수님께서 더 넓은 세상을 보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같은 학부생이지만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진행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교수님께서 정기적으로 진행하신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보안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한 것들을 발표 자료로 제작하고 발표를 하는 과정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것과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진행했던 무선 LAN 관련 보안 내용은 공기업 필기시험의 논술 주제로도 나왔습니다. 연구실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준비했던 국가암호공모전은 저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김현준 선배님과 김도영 학우와 한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끌어 나가는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VR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있었던 선배님이 개발을 전반적으로 맡아 담당하셨기 때문에 개발에는 큰 기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일정 조율, 논문 및 발표자료 작성, 발표와 같이 개발 외적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맡아 작성하면서 최대한 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국가암호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협업과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CryptoCraft Lab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진행한 세미나, 학술대회, 공모전과 같은 활동들은 학부생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경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연구생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교수님과 연구실 학우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